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부지 내 충주 호암동 유적

소준섭
(중원문화재연구원)

〈목 차〉

Ⅰ. 조사개요
Ⅱ. 유적의 입지와 환경
Ⅲ. 조사내용
Ⅳ. 조사성과와 의미

Ⅰ. 조사개요

1. 조사명칭 :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정밀발굴조사

2. 조사지역 : 충북 충주시 호암동 627-1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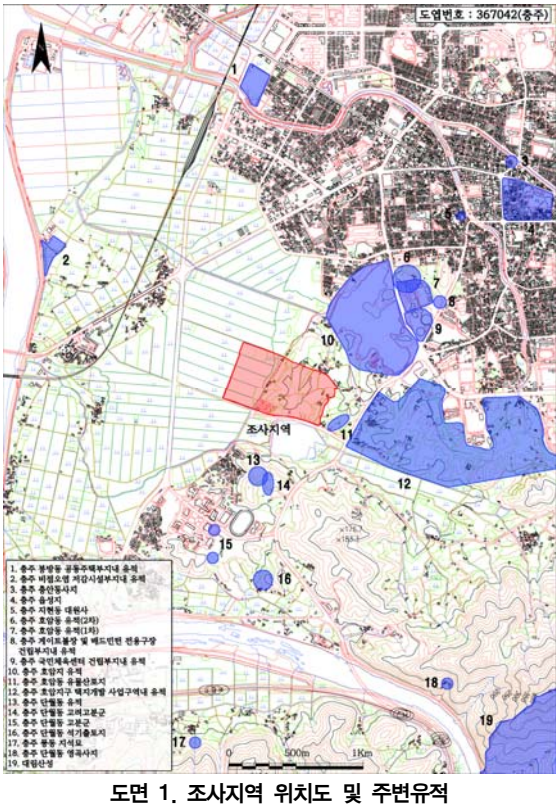
3. 조사유형 : 정밀발굴조사(허가 제2013-1159호)

4. 조사기간 : 2014년 08월 18일 ~ 현재

5. 조사면적 : 50,415㎡

6. 조사기관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7. 의뢰기관 : 충주시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표 1. 충주 호암동유적 유구현황

조사구역		면적 (㎡)	유구현황									계
			구석기 유물포함층	초기철기 분묘	석실분	석곽묘	토광묘	회곽묘	주거지	탄요	수혈	
I	1	125	-	-	-	-	1	-	-	-	-	1
	2	6,940	-	2	-	1	20	6	-	-	2	31
	3	9,400	3	-	1	3	14	3	-	-	-	24
II	1	12,800	-	1	-	-	41	24	-	2	1	69
III	1	600	-	-	-	-	4	-	-	-	1	5
	2	3,420	-	-	-	2	40	3	1	1	3	50
IV	1	15,830	-	-	1	5	130	31	2	1	8	178
	2	1,300	-	-	-	1	5	2	1	-	-	9
계		50,415	3	3	2	12	255	69	4	4	15	367

사진 1. 조사지역 주변 모습(위성사진)

사진 2. 조사지역 원경(서쪽에서)

II. 유적의 입지와 환경

충주시의 남동쪽과 동쪽에 자리한 대림산(487.5m)과 남산(636.0m)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은 급경사를 지나 완만한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달천변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릉성 산지의 끝자락에 삼국시대 이래 충주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대림산에서 서남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이 급경사를 지나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는 구릉성 산지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약 2㎞ 정도 떨어져 달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 탄금대에서 남한강에 합류한다.

도면 2. 충주 호암동유적 현황도

또한 음성의 가섭산에서 발원한 요도천이 동쪽으로 흘러 탄금대 부근에서 달천으로 흘러든다. 달천과 요도천을 중심으로 탄금대에 이르는 지역은 달천과 요도천의 주기적인 범람으로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조사지역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대제지와 호암지가 위치하고 있어 달천변에 넓게 형성된 농경지를 관개한다.

달천변에 넓게 형성된 충적평야와 대림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조사지역에서는 달천변에 형성된 충적평야는 물론 서쪽으로 요도천변의 충적평야와 멀리 가섭산, 서북쪽으로 탄금대와 멀리 장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장미산이 바라다 보이는 등 서북쪽·서쪽·서남쪽으로의 전망이 매우 탁월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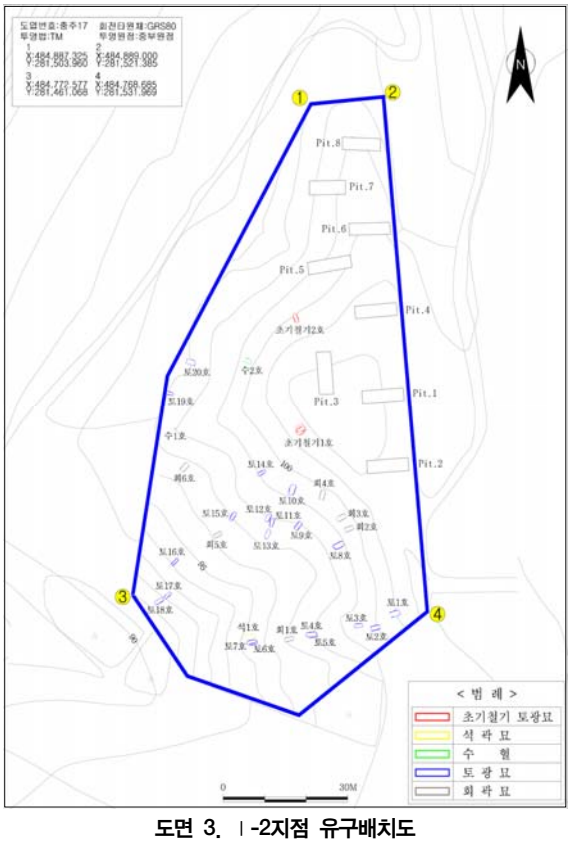
Ⅲ. 조사내용

1. 적석목관묘

1) 구조

적석목관묘는 능선 정상부에서 서쪽 사면으로 이어지는 해발 101~102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기반토인 황갈색 점질토를 二段(上段·下段)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다. 적석목곽묘는 통나무관에 시신을 안치한 후 묘광 내부를 川石과 흙으로 채웠으며, 그 위에 굴착한 흙을 이용하여 봉토를 올린 구조이다.

하단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경사면 위쪽인 북동단벽이 약간 넓게 조성되었다. 장축방향은 N-70°-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175㎝, 너비 82㎝, 깊이 175㎝이다. 묘광의 내부 바닥에는 목관을 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였는데 바닥면에서 확인되는 회백색 점질토가 양장벽으로 완만한 곡률을 이루며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통나무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



도면 3. Ⅰ-2지점 유구배치도

인된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7㎝, 너비 73㎝로 판단되며, 잔존 높이는 최대 13㎝까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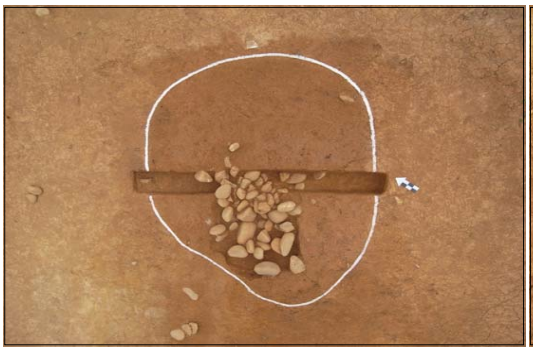


사진 3. 조사전-상단 묘광선 및 적석

사진 4. 조사중-하단 묘광선 확인

사진 5. 적석목관묘 조사중

사진 6. 목관 조사중

한편 바닥면의 양 장벽을 따라 川石이 확인되는데 이는 'U'자형의 통나무관을 안치하기 전(또는 안치한 후) 관의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해 관의 좌우에 끼우거나 받치기 위한 채움돌로 판단된다.

이는 서장벽 최하단 천석의 경우 묘광 바닥면에서 보이는 회백색 점질토가 일부 천석에 침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통나무관을 안치한 후 묘광 바닥에서 약 80㎝의 높이까지 큰 규모의 川石과 암갈색 내지 황갈색 계통의 고운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이 높이까지는 천석과 고운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연하게 채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층위상 목관의 부식과 함께 적석 일부가 함몰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상단 묘광 윤곽선까지 층위 양상은 하부와는 차이를 보인다. 상부는 큰 川石과 묘광 굴착 시 나온 흙을 이용하여 충전하였는데, 하부와 같이 충전양상이 정연하지 못하고 완만한 'U'자형의 토층 양상이 확인된다.

상단 묘광의 어깨선까지 천석과 흙으로 채운 후 그 상부에 봉토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 단면상 봉토로 판단되는 층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상단광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북동-남서 250㎝, 북서-남동 208㎝, 최대 잔존깊이 25㎝이다. 이러한 이단굴착 방식은 화순 대곡리 유적[1], 청주 가경동 유적[2], 경주 조양동 5호묘[3]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사진 7. 토층 단면①-상부

사진 8. 토층 단면②-상부

사진 9. 토층 단면-하부

사진 10. 내부 적석 양상

1) 국립광주박물관, 2013, 『화순 대곡리 유적』.
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청주 가경동 유적』.
3) 국립경주박물관, 2000, 『경주 조양동 유적』.

사진 11. 내부 적석 양상-남장벽

사진 12. 내부 적석 양상-서단벽

2) 유물의 부장양상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1점, 청동기 19점, 칠기편 1점 등 모두 21점이다. 이 중 칠기편 1점은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 파악은 어렵다.

표 2. 적석목관묘 유물 부장양상

부장위치	부장유물	비고
목관내부	정문경 1, 세형동검 7, 동모 3, 동과 1, 칠기 1(?)	
목관상면	흑도 1, 동부 인부편	
목관과 묘광사이	동사 4, 동착 2	보강토 상면 또는 내부
적석내부	동부 공부편	목관상면에 부장된 동부와 동일 개체

적석목관묘 내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물 부장 양상은 다음과 같다(표 2). 유물 부장 위치는 크게 목관내 부장과 목관외 부장으로 구분되며, 목관외 부장은 다시 목관 상면, 목관과 묘광 사이, 그리고 적석내부로 세분된다.

토기와 청동기를 구분하여 부장위치를 검토하면 토기는 목관 상면 부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동기는 출토상황, 배치양상 및 주위 충전석과 목관흔을 고려할 때 동부 1점, 동사 4점, 동착 2점을 제외하고는 목관내 부장으로 추정된다.

사진 13. 유물 출토 상태

목관내에 부장된 유물은 청동기 12점과 칠기편 1점(부채자루?)이다. 12점의 청동기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세형동검 7점, 동과 1점, 동모 3점, 정문경 1점이다. 청동기의 배치양상은 피장자의 두부에 해당하는 경사면 상단부인 동단벽쪽으로 세형동검 5점이 놓여져 있었으며, 북-남 장벽쪽으로 역시 동검 1점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목관의 중간지점에 정문경과 동과가 각 1점씩 확인되었으며, 중간에서 약간 서단벽으로 치우친 부분에 동모 3점이 배치되어 있다.

목관내 부장된 청동기는 검·과·모 등의 무기류와 의기류인 동경에 한정된다. 한편 무기류인 검·과·모의 경우 봉부가 경사면 하단부인 서단벽쪽을 향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모 1점만이 봉부의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목관 외 부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관 상면 부장은 흑도와 유견동부의 출토양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흑도와 유견동부의 인부편은 목관내에서 수습되었는데 흑도는 구연부가 남서단벽쪽으로 뉘여져 있는 상태로 바닥면에서 약간 떠 있었다. 유견동부의 인부편 역시 흑도의 구연부와 인접하여 수직으로 박혀있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들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보아 목관 상면에 부장된 흑도와 유견동부의 인부편이 목관의 부식과 더불어 관내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토 상면 부장은 북장벽에서 확인된다. 북장벽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동사 4점과 동착 2점이 확인되었다. 동사·동착은 묘광 바닥에서 약 10㎝정도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

다. 출토정황으로 보아 목관(통나무관)과 묘광의 북장벽 사이에 사질점토로 채운 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묘광의 윤곽선에서 약 130㎝ 정도 하강하여 묘광내부의 적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견동부의 공부편이 확인되었다. 이 유견동부의 공부편은 앞서 언급한 흑도 주변에서 출토된 유견동부의 인부편과 접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공부편과 인부편은 약 40㎝ 정도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파쇄면 주위로 타격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파쇄하여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4. 세형동검 출토 장면-동단벽

사진 15. 동경 · 동과 등 출토 장면-목관 중앙

사진 16. 동모 출토 장면

사진 17. 흑도 출토 장면-서단벽

사진 18. 유견동부 인부편 출토 장면-서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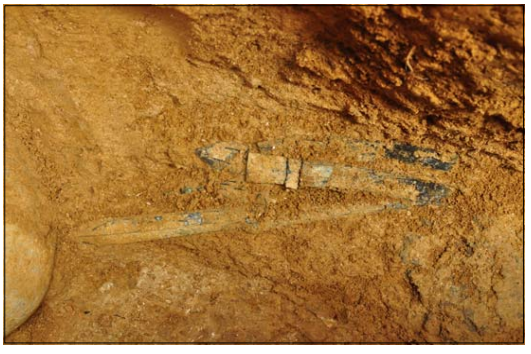


사진 19. 동사 · 동착 출토 장면-북장벽

사진 20. 유견동부 공부편 출토 장면-상부적석내

사진 21. 칠기편 출토 장면

사진 22. 적석목관묘 출토유물 일괄(동사 2점 제외)

2. 목관묘

1) Ⅰ-2지점 목관묘

목관묘는 적석목관묘에서 북쪽으로 약 24m 정도 떨어진 서사면에 위치하며, 해발은 100~101m에 해당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W이다. 규모는 길이 210㎝, 너비 60㎝, 잔존 깊이 약 30㎝이다.

내부 양장벽으로 보강토인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고 있어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묘광의 바닥면은 편평하지 않은데 토층상 최하층에 약 5㎝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고 있어 바닥면을 점토를 이용하여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토기 3점과 동사 1점이 출토 되었다. 유물의 출토위치는 북단벽모서리에서 단경호, 서장벽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 10㎝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동사와 소형 단경호가 각각 출토되었다. 또한 동장벽 부근에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북단벽 모서리에서 확인된 단경호는 바닥면과 약 10㎝ 정도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목관의 부식으로 인해 관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장벽에서 확인된 소형 단경호 1점도 약간 떠 있는 상태이며, 구연부가 동쪽으로 뉘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보강토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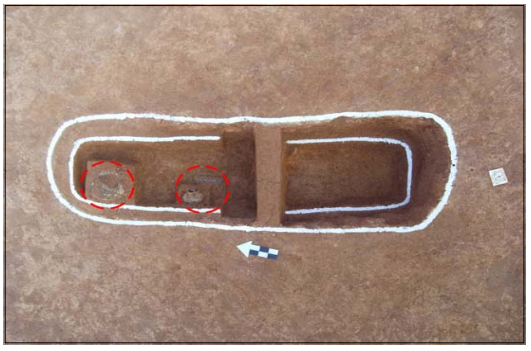


사진 23. Ⅰ-2지점 목관묘 전경

사진 24. Ⅰ-2지점 목관묘 출토 유물

(2) II-1지점 목관묘

II-1지점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는 남-북으로 진행하는 얕은 구릉상의 서사면인 해발 98~99m에 자리하고 있다. 목관묘의 상부는 자연유실로 인하여 대부분 삭평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되는 N-41°-W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1㎝, 너비 76㎝, 잔존 깊이 45㎝이다. 묘광 내부에 목관을 안치한 다음 묘광과 목관사이를 황갈색 사질점토로 채운 목관묘로 판단된다.

유물은 세형동검, 소형 단경호, 옹형토기 등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세형동검은 북서 장벽근처에서 봉부가 피장자의 발치쪽을 향하게 놓여져 있었으며, 소형의 단경호는 동검의 봉부쪽 부근에서 정치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동검과 소형 단경호는 출토위치와 양상으로 보아 관내 부장품으로 판단된다.

한편 옹형토기는 목관내 북서 모서리에서 구연부가 서쪽으로 향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바닥면에서 약간 떠 있어 보강토 상면에 놓여있던 것이 목관 부식의 의해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토기 중 소형 단경호는 논산 원북리유적 나지구 2호 토광묘[4] 및 완주 신풍유적 30호 토광묘[5] 출토품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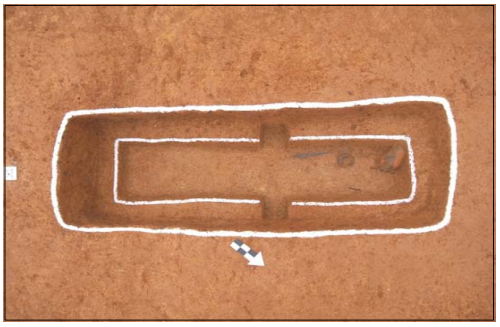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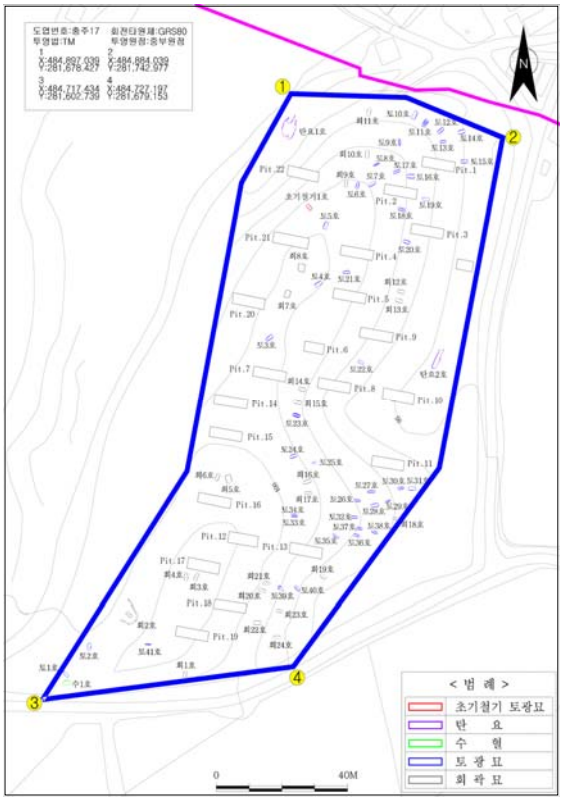


사진 25. Ⅱ-1지점 목관묘 전경



도면 4. Ⅱ-1지점 유구 배치도

사진 26. Ⅱ-1지점 목관묘 출토유물

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논산 원북리유적』.
5)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주 신풍유적 II』.

Ⅳ. 조사성과와 의미

충주 호암동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 3개소를 비롯하여 초기철기시대 분묘 3기, 삼국시대 주거지 1기, 탄요 4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분 2기, 석곽묘 3기, 고려~조선시대 석곽묘 12기, 토광묘 255기, 회곽묘 69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15기 등 모두 36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초기철기시대 분묘는 모두 3기로 1기는 적석목관묘이며, 2기는 목관묘이다.

적석목관묘는 기반토인 황갈색 점질토를 이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상단은 타원형, 하단의 묘광은 말각장방형이다. 적석목곽묘는 통나무관에 시신을 안치한 후 묘광 내부를 川石 과 흙으로 채웠으며, 그 위에 굴착한 흙을 이용하여 봉토를 올린 구조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1점, 청동기 19점, 칠기편 1점으로 21점이다.

지금까지 초기철시기대 적석목곽묘는 화순 대곡리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대부분 수습조사이거나 아니면 온전히 잔존한 예는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충주 호암동에서 조사된 적석목곽묘는 묘의 축조방식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또한 적석목곽묘 내부에서 유물의 부장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행위에 동반한 의례행위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적석목관묘를 비롯하여 목관묘 등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은 대부분 서남부지역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며, 충청도 특히 충주를 비롯한 충북 내륙지역에서는 보고예가 전무한 상태이다. 금번 충주 호암동유적에서 확인된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는 충북 내륙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분묘로써 학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중원과 영남지역, 나아가 서남부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 교류양상과 계통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